

## I-1 내·외국인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추진부서 (사업주체)	농업정책과 (고창군)	팀장	김효중 (2515)	담당자	최형윤 (2578) 최서희 (2467)	추진율	전체대비 40%	23년대비 100%
----------------	----------------	----	---------------	-----	--------------------------------	-----	-------------	---------------

구	분	연도별 목표	세부 추진실적
2022	3분기	◦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추진	◦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배정 : 281명 - mou 258명(네팔 215, 키르기스스탄 43) - 결혼이민자 23명(베트남, 캄보디아 등)
	4분기	◦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	◦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 운영주체 : 고창농협, 흥덕농협, 선운산농협 - 중개인원 : 연인원 16,852명
		◦ 2023년 계절근로 사업계획 수립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 ◦ 해외지자체(캄보디아) 업무협약(MOU) 체결 ◦ 계절근로자 법무부 신청 및 배정승인(776명)
2023	1분기	◦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추진	◦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배정 : 222명(mou 14명, 결혼이민자 80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쉼터 마련 및 헌 옷 나눔 기부행사 개최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수요조사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사업 수요조사 및 분석
		◦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	◦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 운영주체 : 고창농협, 흥덕농협, 선운산농협, 대성농협 - 운영기간 : 1월~10월 - 중개인원 : 연인원 10,240명
	2~3분기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협의(농식품부)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식품부 사업 추진 협의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주체 사업설명회 개최(2회) - 고창농협, 흥덕농협, 선운산농협, 대성농협, 해리농협
		◦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추진	◦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배정 : 357명(mou 106명, 결혼이민자 251명) ◦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 상생 결의대회 개최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 구축 ◦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적정인건비 제시
	4분기	◦ 사업 신청	◦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배정 : 28명(결혼이민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 ◦ 해외지자체(캄보디아) 업무협약(MOU) 재체결 ◦ 계절근로자 법무부 신청 및 배정승인(1,600명)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신청 및 운영	◦ 농촌인력중개센터 일몰제 적용 사업 폐지 ◦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선운산 농협, 사업비 98백만원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주체(선운산농협) 사업 추진협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원, 근로자 관리, 농가신청 배정, 농가이용료 책정 등
2024 ~ 2026		◦ 사업 지속 추진	

## I 사업개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규모 : '23년 600명 → '24년 1,600명\* → '25년 1,800명 → 26년 이후 2,000명 이상  
\* (MOU) 700명 \* (결혼이민자) 900명
- 유치방법 : MOU 외국지자체와 mou체결 후 외국지자체에서 추천한 주민  
결혼이민자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사촌이내 친척 초청
- 사업비 : 1,944백만원(도비 268.8, 군비 1,675.2)
- 사업방식 : 농가형(농가-근로자 매칭 공급), 공공형(운영주체-하루단위 공급)
- 사업내용 : MOU 체결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된 수급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업규모 : 4개소(고창농협, 선운산농협, 대성농협, 흥덕농협)
- 사업비 : 1,690백만원(국비 845, 도비 253.5, 군비 591.5)
- 사업내용 :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여 필요 농가에 근로 인력 중개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내국인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수급이 어려워 성과 미흡

- 농업은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 수준이 낮아 내국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농업인들도 외국인 선호

(대 책) 해외유치로 인력수급이 원활하고 저임금 및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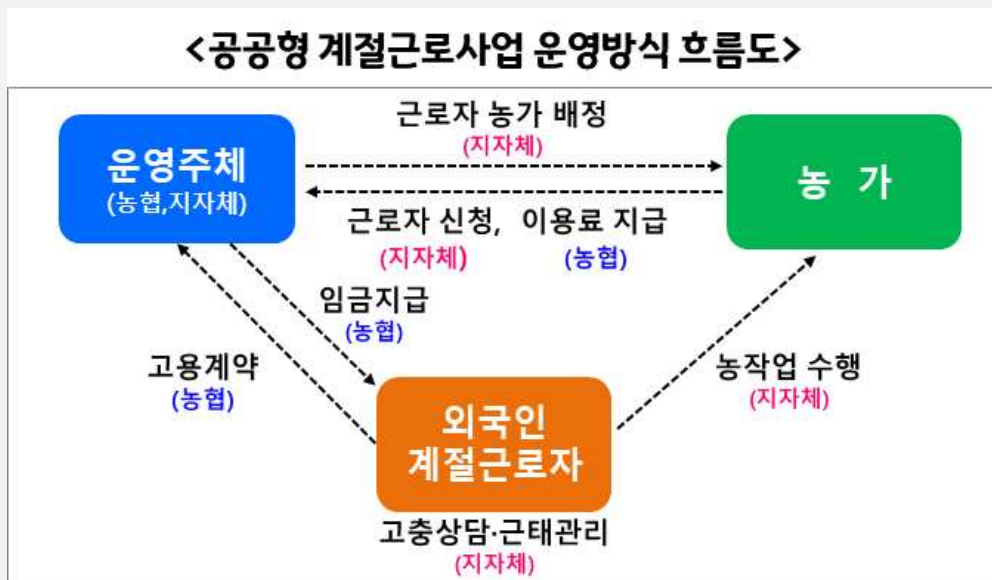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 운영인원('24년) : 해외유치(MOU)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  
\* '24년 연 공급인원 6,000명 → '25년 10,000명 → '26년 이후 15,000명 이상
- 운영주체 : 선운산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사업비 : 534백만원(국비 147, 도비 44.1, 군비 342.9)

## I. 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하루단위로 공급하여 일손부족 해소
- 우선순위
  -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 과수, 채소 등 고용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 운영방식

※ **고창형 모델 제시**(운영주체 **농협** 회계분야, 지자체는 회계를 제외한 전체 총괄 관리)

【고창형,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계절근로자 만족도 높이GO, 농가소득 올리GO**



### ※ 농가 맞춤형 원콜 예약 서비스 시행

\* 농작업 맞춤형 근로자 공급

(여성) 고추, 복분자 수확, 수박, 멜론 순집기, 고구마 수확, 땅콩 수확 등  
(남성) 수박, 멜론 운반, 고추포대 옮기기, 농기계 작업 등

▶ 근로자 신청(예약, 배정) → 근로자 인계(기숙사) → 농가 근로자 인수 작업장 이동

## II 지금까지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및 MOU 체결(고창군⇄김포시) ... 2022. 11.~12.
- 계절근로자 법무부 배정 승인 ..... 2022.12./2023.5.
  - 172농가/859명(상반기 776명, 하반기 83명)
- '23년 농촌인력 중개센터 공모사업 선정(농식품부) ..... 2023. 1.
  - 4개소 : 고창농협, 흥덕농협, 선운산농협, 대성농협

- 계절근로자 교육 및 농가배치 ..... 2023. 3./9.  
- 158농가/600명(MOU 250명, 결혼이민자 350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쉼터 마련 및 헌 옷 나눔 기부행사 개최 ..... 2023. 3.
-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 상생 결의대회 개최 ..... 2023. 4.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 구축 ..... 2023. 6.
-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8.
-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제시 ..... 2023. 9.
- 성실근로자 재입국(키르기스스탄 11명) ..... 2023. 9.
- '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및 법무부 배정 승인(1,600명) ... 2023. 10.~12.
- 해외지자체(캄보디아) MOU 체결 ..... 2023. 12.

### III 향후 추진계획

- 해외지자체(베트남) MOU 체결 ..... 2024.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교육 및 농가 배치 ..... 2024. 2.~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 2024. 2.~  
- 1일 2농가 방문제도 운영, 헌 옷 기부행사, 무료건강검진, 결혼이주여성 초청 본국  
음식제공, 관내 관광지 견학, 동리시네마 영화관람 등
-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 추진 ..... 2024. 3.~
- 법·제도적 기반마련 ..... 2024. 3.~  
- 가칭) 「고창군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가칭)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노력-
- 각 주체간(행정,농협,직업소개소,농가 등) 인건비 안정을 위한 상생결의대회 개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국내 최초,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 제정 및 적정 인건비 제시로 평균임금 하락(15만원→12만원)

한국농어민신문

HOME > 전국 > 전북

###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구정민 기자 | © 송민 2023.08.08 17:37 | □ 조수 3511 | □ 10면

| 심의위서 적정 인건비 제시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고창군은 지난 4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 억제 및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전북 고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고창군의회는 지난 1일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표 시행했다.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돕고자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영농철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할 실용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행정-
- 외국인근로자 무료건강검진,관리센터.쉼터,기숙사,한옷기부 등을 통한 기본적 권리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창에서 코리안드림 실현한다

24 news24.com 2023.07.12 15:49

2023년 7월 14일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역농촌 현장에 없으면 안 될 이들이 있다. 캄보디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는 생산과 소비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중도이탈문제 등을 극복하며 하나가 되고 있다. 고창군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고창군]

고창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859명의 계절근로자 배정송인을 받아, 현재까지 483명의 캄보디아 근로자가 입국하여일손을 들고 있으며, 하반기에 130여명이 추가 입국 예정이다.

"고창 좋아요"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지난 12일 오후 고창군보건소 검진실. 한 외국인 근로자가 혈액검사를 위해 주사바늘이 팔에 닿자 얼굴을 찡그리며 아픈 표정을 지었다. 엑스레이 등의 검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고창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위해 간 기능 등 30개 항목에 대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한 외국인 근로자는 "캄보디아에서는 아픈 곳이 없었는데,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먹다보니 소화가 잘 안 돼 불편했다"며 "큰 이상이 없어 다행이다"고 활짝 웃었다. 그는 "고창에서 이왕기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4~5분씩 모를 심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무척 놀랐다"며 "고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행정-
- 외국인근로자 무료건강검진,관리센터.쉼터,기숙사,한옷기부 등을 통한 기본적 권리 보장

전주일보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016면

###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도울 것"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역농촌 현장에 없으면 안 될 이들이 있다. 캄보디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고창군은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중도

이탈문제 등을 극복하며 정착하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859명의 계절근로자 배정송인을 받아, 현재까지 483명의 캄보디아 근로자가 입국하여 일손을 들고 있으며, 하반기에 130여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올해 859명 배정송인, 현재까지 483명 캄보디아 근로자 입국  
30개 항목 무료건강검진 · 전용 기숙사 마련 · 한국어 교육 등 제공

"고창 좋아요"

지난 12일 오후 고창군보건소 검진실. 한 외국인 근로자가 혈액검사를 위해 주사바늘이 팔에 닿자 얼굴을 찡그리며 아픈 표정을 지었다. 주사 공포는 한국공통이다. 엑스레이 등의 검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고창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위해 간 기능 등 30개 항목에 대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한 외국인 근로자는 "캄보디아에서는 아픈 곳이 없었는데,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먹다보니 소화가 잘 안 돼 불편했다"며 "큰 이상이 없어 다행이다"고 활짝 웃었다. 그는 "고창에서 이왕기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4~5분씩 모를 심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무척 놀랐다"며 "고창에서 지내는 동안 배우고 싶은 것들이 무척 많았다"고 했다.

인선 8기 고창군이 지역의 중도 이탈로 자라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선 8기 송민군에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인 만큼, 고창을 찾는 외국인근로자와 농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친 노동 끝에 편안한 휴식, '맞춤형 근로환경 개선' 고창군은 주·휴일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쉼터를 마련했다. 내년 개 준공해 필요한 외국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외국계절근로자 관리센터도 설치했다. 한외국인계절근로자와 외국인들이 직장 내 적응에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해 노동권과 임금청구 등에 도움 해주고 있다. 특히 쉼터·기숙사·기숙사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포용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송민 / 8기 - 심택식 고창군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범도시로 발돋움"

심택식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어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건비보에 더욱 힘쓰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배려정책-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문 등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 쓰레기 분리수거함 각 나라 언어로 안내



##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 조례제정(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1]  
(제정) 2023.08.01 조례 제2727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560-2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을 통하거나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직업소개업소”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을 통하거나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건비”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주급, 월급, 그밖에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10일 이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군정 소식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적정 인건비 준수)**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농업인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직업소개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유료직업소개업소의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행정처분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다.
2.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한 농업인은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언론보도)

###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제시...최대 남자 13만원, 여자 11만원

전국 최초 농촌인력 인건비 지원 조례...모범 업소·농가 등에 인센티브 지원  
(고창=뉴스1) 박재철 기자 | 2023-09-05 09:10 송고



전북 고창군이 농촌인력의 적정 인건비 제시를 위해 심의회를 열고 적정인건비를 결정했다(고창군 제공(2023.9.5/뉴스1))

전북 고창군이 농촌인력의 적정 인건비 제시를 위해 심의회를 열고 적정인건비를 결정했다.

고창군은 4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회'를 열고 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했다.

### 고창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를 위한 헌옷 기부 및 나눔 행사 추진

2월6일부터 각 읍·면사무서서 기부 받아...1인당 3벌씩 지급 예정  
(고창=뉴스1) 박재철 기자 | 2023-01-29 15:49 송고



화상회의를 통한 전북 고창군(오른쪽)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의 업무협약 모습(뉴스1/DB) © News1 박재철 기자

전북 고창군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헌옷기부 및 나눔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 12월 심덕섭 고창군수와 캄보디아 노동훈련직업부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305명의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들이 고창군 150여 고용농가에서 5개월 동안 계절근로를 실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평균기온이 23~35도의 열대기후에 속한 나라로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3월)에 맞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인당 3벌씩 배부할 계획이다.

###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려 정책 실현

지원조례·근로자쉼터·인권지킴이·최신식 숙소 마련 등  
전경발 기자

최종 기사일자 2023-07-26 11:12



전북 고창군이 지난 3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889명의 계절 근로자 배정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483명의 캄보디아 근로자가 입국해 일손을 돕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30여 명이 추가 입국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오후 고창군보건소 집선실. 한 외국인 근로자가 혈액검사를 위해 주사 바늘이 팔에 달라붙을 쥔그리며 아픈 표정을 지었다. 주사 공포는 한국 공통이다. 엑스레이 등의 검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을 위해 간 기능 등 30개 항목에 대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한 외국인 근로자는 "캄보디아에서는 아픈 곳이 없었는데,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돼 불편했다"며 "이 이상이 없어 다행이다"고 활짝 웃었다. 그는 "고창에서 이왕기가 한번 지나갈

### 전북 고창군,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기 가장 좋은 도시' 입증

입력 : 2024-01-03 11:05 | 수정 : 2024-01-03 11:05



▲ 전북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고창군 생활인구가 주만등록 인구의 5배인 24만2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외국인 생활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발표 결과 고창군의 생활인구(2023년 4~6월 기준)가 24만2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5만 1994명이었다. 생활인구는 24만 2247명으로 실제 인구의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는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인 합친 현지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고창군의 체류인구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창군 외국인 인구는 1421명이었다. 또 지난해 6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일손을 도왔다. 올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가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냈다.

행안부는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3월이면 외국인 근로자 가족사도 준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번 산정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총보하는 한편 생활 인구를 늘리는 정책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언론보도)

## 심덕섭 고창군수 “외국인 근로자 일하기 좋은 도시 목표”

✎ 구정민 기자    Ⓜ 승인 2024.01.09 16:23    ☎ 호수 3552    📄 10면

[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올해 입국허가 1600여명 획득**  
**3월 기숙사 준공, 지원 힘써**  
**“인구소멸 지역 극복 위한 대안”**

전북 고창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가운데 생활인구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